

이제 도서관이 해야 할 일

정희천

국립중앙도서관장

지난 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서관진흥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정관할이 종전의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게 되었다. 아울러 문화부는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모든 도서관에 대한 발전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되고 도서관의 설립, 시설 및 자료확충을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공공도서관이 지역내 각종 문화시설과 연계를 강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공간 및 평생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명시되었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이 입시공부방의 구실밖에 못하고 있다는 일반의 지탄을 과감히 불식하여 주민의 생활 속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지적 소장처로서 구실을 다하게 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일체의 간행물이나 비도서자료는 이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영구보존함으로써 백년 또는 천년 뒤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또 연구자료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책무는 납본기능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자료이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기만 하면 저자나 출판사 또는 그 자료내용은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영원히 남게 된다.

자료가 낡으면 원본대로 복제하여 보존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출판계와의 관계는 납본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작년 8월 24일 ISBN 국제기구에, 또 금년 1월 8일에는 ISDS에 가입함으로써 출판계와 더욱 깊은 협조관계를 맺게 되었다.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전산화시대에 대비한 서적의 유통에는 물론이고 문헌정보의 국내외적인 교류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출판계와 유대를 가일층 강화하여 이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우리의 출판계나 도서관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고립 내지는 낙후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번 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출판계는 책출판을 통해서, 도서관은 출판된 책을 활용하는 기능을 통해서 상호공존 내지는 보완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바뀐에 따라 가장 핵심적인 정보매체인 책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비해 독자들의 책에 대한 이용은 출판계의 의도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대체로 생산과 유통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책 출판시 독자가 큰 마음부담없이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만화형식의 고전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학술서적의 경우 내용색인을 좀더 충실하고 과학적으로 처리하여 독자에게 독서목적의 시간을 좀 더 줄여줄 수는 없겠는지 등등... 여하튼 독자층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출판방식을 기대해보고 싶다. 유통측면에서 보면 학교 졸업과 동시에 책과도 절연하는, 그래서 독서가 취미일 수밖에 없는 우리네 풍토부터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동네서점 같은 곳이 오히려 감소경향을 보일 정도로 취약하다는 점에서도 처방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도서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도서관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도서관에서 많은 책이 살아서 펄펄 움직여야 하는데, 책이 살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다닐 수 있도록 과연 손발을 제대로 만들어 주었는지 자문해보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도서관이기에 새로운 전기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진흥법은 공포 후 한달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적어도 도서관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든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달라져가는 모습만큼 우리사회의 모습도 그만큼 더 달라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도서관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 사실을 도서관 구성구석에 새겨 스스로를 편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의의가 밝아지겠기 때문이다.

뉴스	2	외국만화도 3월부터 사전심의·외
표지인물	4	고대문화 비밀 캐는 언어의 고고학 「삼국시대의 한자음」 펴낸 유창균교수
초점	6	춘추전국의 학습지 판매경쟁— 임종기 메이저급 출판사들 앞다퉀 뛰어들어 각축
	8	저작권에이전시 대부분이 개점휴업 서너곳 뚫은 거의 실적 없어... 인식부족이 큰 문제
서평	10	정경호 「백제사찰건축」— 이달훈 김열규 「한그루 우주나무와 신화」— 황루시
	11	이민호 외 「독일사의 제국면」— 이상신 이상률 「칼 마르크스와 막스베버」— 배병삼
	12	이영희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이광택 한승현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 김일수
	13	최 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심광현 보그스 「영화보기와 영화읽기」— 김경옥
리뷰	14	도서관 관련도서 얼마나 나와 있나 교재 및 실무지침서가 대부분... 도서관정책 관련서는 미흡
출판화제	16	책으로 진단한 한국경제의 현실 전환기적 경제현실 다각도로 검증
이 책 그 사람	18	「일월호반에서」 펴낸 전몽각교수 「사랑고행」 펴낸 현몽스님
	19	「동전과 개구리의 하늘」 펴낸 정진홍교수 「황색승복」 번역한 김영애교수
시론	20	만해 한용운 연구 어디까지 와있나— 김재홍 만해연구의 시기별 특징과 문제점
리포트	22	“만화문화의 자정능력 적극 유도해야” 23 판례를 통해 본 출판저작권 분쟁실태
해외화제	24	출판의 첨단물결 ‘전자북’ 출현— 이봉호 日 소니社서 발매동시 대히트
세계의 출판	26	금세기 최고 낭만파영웅의 초상·외
	28	독자서평
	30	어린이책 들춰보기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